

# 11월 셋째 주, 프랑스 보졸레 햇와인 맛보는 시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보졸레 누보

“보졸레가 도착했다(les Beaujolais Nouveau arrivent).”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11월 셋째 주, 와인을 마시면서 일년 중 유일하게 달력을 보고 날짜를 따져보는 날. 바로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를 맛보는 일이다.

‘보졸레’는 지역 이름, 누보는 ‘새롭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와인이다. 그해 9월 초에 수확한 가메(Gamay) 품종 포도를 4~6주의 짧은 기간만 숙성시켜 내놓는다.

당초 1951년 프랑스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명칭통제를 받는 AOC 와인은 12월 15일까지 판매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누보’ 와인 명칭을 포함하는 몇 가지 예외가 만들어지며 보졸레 누보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보졸레 누보가 원래부터 11월 셋째주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처음 15년 동안은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날이 바뀌었다. 1967년부터는 11월 15일로 못을 박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해에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서 날짜에 맞춰 운송을 보장할 수 없었고,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이 문을 열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날짜가 아닌 셋째 주 목요일이다. 여전에 보졸레에선 11월



2021년 보졸레 누보. /www.beaujolaisnouveau.fr

15일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세계 와인애호가들 입장에선 적어도 제때에 받아보고 맛볼 수 있는 지금이 좋은 셈이다.

보졸레 누보만큼 흥망성쇠를 다 거친 와인도 드물다.

대대적인 출시 행사와 함께 국내만 해도 2000년 전후로는 파티까지 열리기도 했다. 사겠다는 고객이 줄을 서는 풍경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와인은 ‘오래 묵은 것이 제 맛’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보졸레 누보는 어느새 덜 익은 저가 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 세계적인 축제

일로 성공했던 만큼 고정 관념에 따른 어려움 역시 컸다.

보졸레 누보의 매력은 무시당했던 신선함이다. 오랜 숙성을 거친 묵직한 레드 와인이 부담스러웠던 이라면 과실향이 풍부하고 뽀뽀한 타닌은 적은 보졸레 누보가 제격이다.

보졸레 누보는 가메 품종으로 탄산 침용해 만든다. 압박하지 않은 송이를 통째로 발효하는 방식이다. 으깨지 않은 포도알 안에서 세포 내 발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탄닌과 알코올 도수는 일반 레드와인보다 낮지만 특유의 과일풍미를 지니고 부드러운 와인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매력은 ‘쉽다’는 것. 서빙 온도를 크게 따질 일도, 마실 시기를 논할 필요도 없다. 피자나 가벼운 소시지나 돼지고기 요리나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린다. 살짝 차게 해서 먹으면 굴같은 해산물과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햇와인이라지만 보졸레 누보 역시 다른 와인들처럼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를 예약했다. 2021년 빈티지의 첫 맛이 기대되는 저녁이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로 체득하는 지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물 출입구에 있는 문을 여닫을 때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가 만진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대기가 찝찝해서다. 대신 문 한가운데를 어깨로 힘겹게 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문이 왜 이렇게 무거워? 개떡같이도 만들어놨네’라고.

창조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생각의 탄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나온다. 저자가 대학에 다닐 때 전 과목 성적이 늘 상위권인 존이라는 총명한 벗이 있었다. 둘은 함께 기계학 강의를 들었는데 학기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존이 그를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존이 물리학과등을 빠져나오려 강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을 힘껏 밀었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옆에 있던 친구가 손잡이 부분을 살짝 밀자 문이 활짝 열렸다. 존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을 열었지?” 친구는 “지금, 농담하냐? 얼마 전 기계학 수업에서 토크(돌림힘)를 배웠잖아!”라며 그를 한심하게 쳐다봤다.

토크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다. 문을 열 때 경첩이 달린 쪽에서 먼 쪽을 밀수록 문이 쉽게 열리는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하다. 존은 문의 크기를 x로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y로 놓고 계산을 시작하더니 한참 뒤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저자는 “문제는 존이 머릿속에 있는 이론과 자신이 겪는 실제 세계의 물리학적 경험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그는 물리학 시험에 나온 토크 문제를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 풀긴 했지만, 그 때는 그저 토크



####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벤스테인, 미셸 루트벤스테인 지음  
박종성 옮김/에코의서재

방정식의 ‘환상’을 본 것”이라고 꼬집는다. 불행히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와 실제생활을 연결짓지 못해 학문 수양에 어려움을 겪는다.

저자는 “교육에서 ‘무엇’과 ‘어떻게’의 결별은 곧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이 분리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이해함으로써 앞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외움으로써 알게 된다. 그들의 지식은 실로 허약하며 쓸모없다. 이 교육적 실패의 결과물은 걸만 번지르르한 ‘학문적 성취’의 외장일 뿐이다”라고 일갈한다.

책은 실제와 환상을 결합하는 일이 교육자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창조성이 뛰어난 이들이 둘을 어떻게 엮어냈는지 알려준다.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 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이라는 13가지 생각의 도구들로 외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이해로 체득하는 법을 일깨우는 책.

455쪽, 2만75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대치동

조장훈 지음/사계절

국내 사교육의 중심지이자 전국의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부동산 시장의 골칫덩어리, 대치동은 대한민국 욕망의 최전선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와 부동산은 365일 24시간 뜨거운 이슈다. 수능 점수와 출신 대학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취업과 승진, 소득은 물론 한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한정 짓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경쟁적으로 매달린다. 교육 열망이 모이는 곳의 집값은 천정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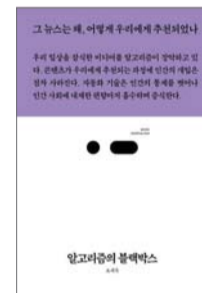


로 치솟고 자녀 입시를 위해 이주를 강행한 부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다. 대학 입시와 부동산간의 복잡한 셈법이 얽힌 대치동의 중심에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학원가가 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20여년간 일한 입시전문가인 저자가 명문대 간판을 따기 위해 이곳에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 열기 속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들이 어지럽게 뒤엉킨 대치동 내부의 풍경을 써내려 간 책. 416쪽, 1만8000원.

###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오세욱 지음/스리체어스(threechairs)

현대인은 미디어에 잠식됐다. 혼란을 할 땐 유튜브를 시청하고, 틈틈이 잠날 때 눈에 들어오는 뉴스 기사를 클릭하고, 자기 전엔 SNS에 접속해 랜선 친구들과 소통한다. 알고리즘은 수많은 매개를 자동화해 인간이 가상현실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뒷덜미를 잡고는 놓아주질 않는다. 일상의 상당 부분이 미디어에 종속된 현대인에게 모사된 표상은 실재에 버금간다. 자동화된 미디어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다. 책은 이 같은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까발리고 인간이 기술에 길들여지지 않을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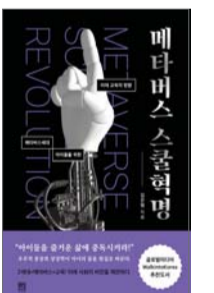


128쪽, 1만2000원.

### 메타버스 스쿨혁명

김은형 지음/서사원

인간의 상상력이 디지털 메타버스는 새로운 가상현실의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알고리즘으로 조종한다. 저자는 Z세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생필품이 된 지 오래고, 디지털 메타버스는 이제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 됐다. 책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도구의 인간으로 아이들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속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뚜렷이 하고 유아기부터 단계별로 철학과 인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44쪽, 1만6800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로나 공포 다시 덮친 유럽... 각국 방역 '유턴'  
▲ 日, 12년 전엔 조용하더니 '경찰청장 독도방문에 반발' /사진 뉴시스

▲ 헝가, 인터넷 자회사 잔여 지분 매각... 3000억원 확보  
▲ 中 국가반독점국, 정식 출범... 빅테크 규제 강화 전망



▲ 38년 전 적외선 관측 자료 다시 들춰 찾아낸 제9 행성 후보  
▲ EU, 벨라루스 국경 난민 구호에 9억 원 긴급 지원 /사진 뉴시스